



## 중국, 1/4분기 GDP 성장률 둔화

최 원 선임연구원

-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1/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연초 예상치인 8%보다 0.3%p 낮은 7.7%를 기록함.
  - 중국 GDP 성장률은 2010년 1/4분기(9.8%) 이후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다 2012년 4/4분기(7.9%<sup>1)</sup>) 반등하였는데,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2013년 1/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음.
  -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013년 1/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.2%p 낮은 7.7%를 기록하였으며,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 8~8.2% 보다도 약 0.3~0.5%p 낮아 기대에 미치지 못함.
  - 중국 정부 관계자는 2013년 GDP 성장률 목표치가 7.5%이며, 향후 소비 확대에 의한 GDP 성장률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함.
  
- 일부 전문가들은 2013년 1/4분기 GDP 성장률(7.7%)이 중국 정부의 연간 목표치(7.5%)보다 높아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제로 실물경기의 성장 탄력이 예상보다 약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평가함.
  - 1/4분기 약 6조 1,600억 위안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었으며, 이는 투입된 자금이 부가가치 생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고정자산 투자 대비 성장성이 둔화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함.
  - 또한 1/4분기 수출증가율이 18.4%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수출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, 수출 호조세를 근거로 한 현재 경제성장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함.
  
- 중국 1/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2013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.

1) 2012년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.4%임.

- 세계은행은 2013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8.4%에서 8.3%로 0.1%p 하향조정하였으며, 호주 뉴질랜드은행과 소시에테제네럴은행도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.3%p, 0.2%p 낮은 7.8%, 7.6%로 수정함.
  - JP모건은 중국 1/4분기 GDP 성장률이 자사의 예상치인 8.1%보다 낮게 나타나자 2013년 전망치를 기존의 8.2%에서 7.8%로 수정하였으며, 완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.
- 또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지난 4월 9일 위안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을 ‘AA-’에서 ‘A+’로 강등한 데 이어 무디스도 4월 16일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‘긍정적’에서 ‘안정적’으로 하향조정함.
- 피치는 지방정부 부채 규모, 낮은 평균 소득, 급격한 신용 팽창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위안화 표시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유라고 설명함.
  -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이유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지적하였으며,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폭넓은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.
- 한편, 최대 규모의 원자재 수요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가격 하락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남.
- 4월 15일 은, 백금, 구리 가격이 전일대비 각각 11%, 4.8%, 5.2%p나 하락하였으며, 두바이유는 배럴당 99.28달러로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를 하회하였음.
  -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하락은 중국의 1/4분기 GDP 성장률 둔화로 장기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였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임.
- 중국의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.
-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도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을 제공하였으나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경제가 다시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요구되고 있음.
  - 미국의 양적완화 지속, 일본의 아베노믹스, 우리나라의 추경 예산 편성 등 경기회복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
(Wall street journal, 한국경제 등)